

“도움 필요한 이웃과 지역경제활성화 위해 노력 할 것”

전북자원봉사센터- KT전북본부 등 13개 기업·기관 연합봉사 실시

전북자원봉사센터와 KT전북본부 등 13개 기업과 기관은 29일 기업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해피커뮤니티 만들기'를 장수군 장수읍 와동마을, 개정마을 일원과 장수 한누리 전당 다목적 체육관에서 전개했다.

이번 기업사회공헌 행복프로젝트는 전북자원봉사센터가 중심이 돼 KT전북본부, 한국에너지공단 전북본부, 원광대학교 치과대학병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본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KTCS전북사업단, 원광대학교 치과병원 중앙기공실, 전북 금연지원센터, 장수군 보건 의료원, 장수군자원봉사센터의 네이아트, 원예체험, 축담봉사, 음료봉사 등 13개 기업·공공기관의 봉사단이 마을주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날 봉사단원들은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보수, 통신회선 점검/정리, 가스시설 점검 및 타이머 폭살치, 욕실 샤워기헤드 교체, 효도전화기 지원, 치과 의료점검 및 틀니 수리, 살균세척, 욕실 미끄럼 방지 매트설치, 스마트폰 활용 교육,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금연 상담, 폐기물 및 비만도 측정, 한방진료 및 치매예방검사, 신나는 예술버스 공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는 행복 쉼터지 발차를 운영하고 한방재료를 넣은 삼계탕을 준비해 마



전북자원봉사센터와 KT전북본부 등 13개 기업과 기관은 29일 기업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해피커뮤니티 만들기'를 장수군 장수읍 와동마을, 개정마을 일원과 장수 한누리 전당 다목적 체육관에서 전개했다.

을 어른신들의 건강을 챙겼다. 전북자원봉사센터 김훈 센터장은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행복한 전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KT전북본부장 최찬기는 “국민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우리 KT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전북대 안문석 교수, 세계 3대 인명사전 등재

전북대학교 안문석 교수(정치외교학과)가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Marquis Who's Who)'에 등재됐다.

마르퀴즈 후즈후는 미국 인명정보기관(ABI), 영국 캄브리지 국제인명센터(BC)와 함께 세계 3대 인명사전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대외관계와 동북아 국제관계를 주로 연구하고 있는 안 교수는 이 분야에서 SSCI와 SCOPUS 등 국제 저명 학술지에 8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학문적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도 매년 3~4편의 논문을 꾸준히 발표하고 북한정치와 국제정치에 대한 저서 및 역서도 10여권을 저술하는 등 이 분야에 있어 활발한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

안 교수는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요크대학교에서 비교정치학 석사, 영국 워릭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향신문과 KBS에서 기자로 재직했으며 2012년부터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강단에 서고 있다. /정혜은 기자



전북농협, 김제지역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 실시

전북농협과 진봉농협, 광활농협은 29~30일 양일간 김제시 진봉면, 광활면 지역 고령농업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의료지원 및 장수시진활영을 무료로 지원하는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행복버스 사업의 일환으로 원광대전주 한방병원 의료진과 의료협약을 체결한 뒤 지역 농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개인별 맞춤 침, 뜸 치료와 약제 처방까지 이뤄져 농사일에 지친 농업인들의 건강 및 피로회복에 크게 기여했다.

강태호 본부장은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져 좀 더 다가와서 복지 서비스를 해 주길 바라는 목소리가 많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농업인을 위한 사업을 더 발굴해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삼성모바일 스토어 군산점, 나온 3동에 사랑의 쌀 기부

축하금·화환 대신 받은 '사랑의 쌀'을 이웃사랑을 위해 기부하며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나은3동이 최근 수송로에 신규로 오픈하게 된 삼성모바일 스토어 군산점(대표 최오성)이 개업 축하 화환 대신 받은 '사랑의 쌀' 백미 20kg, 35포대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주민센터로 기부해 왔다고 밝혔다.

최오성 대표는 “지역사회에서 받은 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이번 전달식을 갖게 됐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의 이웃이 훈훈한 사회의 정을 느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철규 나은3동장은 “이번에 기탁 받은 상품은 독거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과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관준 기자

한국지역지부 군산지회, 희망꾸러미 나눔 행사 가져

전국금융노조 한국지역지부 군산지회가 29일 미래세대 아동·청소년을 위한 생필품을 담은 희망꾸러미(400박스, 2000만원 상당)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번 나눔 행사는 한국지엠 한마음재단의 후원과 군산지회 노조원들의 정성, 군산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홍진웅)의 도움에 한데 모여 진행되었다.

군산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원받은 희망꾸러미를 관내 청소년 관련 사회복지시설 3개소와 읍면동 저소득 아동·청소년 가구를 선정하여 총 400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2005년 임직원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한마음재단은 의료비와 장학금, 소외계층 영재학교, 주거환경개선 등 소외계층 지원사업과 차량 기증, 복지시설 수리 및 물품 지원 등 공익단체 지원으로 우리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고 있다.

한편 한국지엠의 임직원들이 모여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인 한마음재단은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비와 장학금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의 지원사업과 차량 기증, 복지시설 수리 및 물품 지원 등 공익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살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군산=정 현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7년 11월 29일 (목요일)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960912 전주시 영신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출동)	
발행·편집장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전무 겸 편집국장 김관준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388-6874	남원지사 632-3886	고창지사 563-6889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6855	임실지사 010-9642-2725
서산지사 272-9417	순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855	진안지사 433-3084
호치지사 010-6645-9335	광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955	정읍지사 536-3087
	군산지사 010-6789-033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82-9157
	익산지사 659-93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1-4233
*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헌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무진장소방서, 가을철 등산목 안전지킴이 운영

무진장소방서는 9월부터 10월까지 주말과 공휴일에 산악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덕유산, 마이산 등산로 입구에서 가을철 산악진급구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등산 목 안전지킴이를 실시한다.

등산 목 안전지킴이는 주요 등산로 입구에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들을 배치하여 군민의 안전한 산행을 유도하여 산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구급차 등을 근접 배치해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에 무진장소방서는 산악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활동 및 응급처치를 하며, 심폐소생술 및 등산관련 안전수칙 교육, 구급차대기 및 유통순찰을 실시하여 등산객의 안전한 산행을 도울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경찰서, 성·가정폭력 예방 교육 실시

무주경찰서는 지난 28일과 29일, 무주서 4층 강당에서 분서 및 파출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매매, 성·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실시한 교육은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정분 소장의 사례 중심 강의로 진행 됐으며, '성인지(性認知) 감수성 함양' 과 더불어 요즘 이슈화 되고 있는 '젠더폭력'에 대한 내용을 강의로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젠더폭력에 대응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담당하므로, '젠더 나 '성인지'에 더욱 민감해져야 한다고 강조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 한눈에 반하다

국립중앙도서관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왕의도시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